



길잡이 IV

“나 때문에 울지 말고 ...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루카 23,28)

예수님의 선하심과 연민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수난을 당하시는 어려운 때에 그분과 함께 머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 봉사, 일치, 겸손, 그리고 기념함에 대해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력하여 인간적 고통을 막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신심 깊게 머무는지를 성모님에게 배웁니다.

예수님의 고통 안에서 점차적으로 우리는 인간 고통의 의미뿐만 아니

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으로 더 강해진 우리는 죽음과 온갖 고통과 슬픔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에 희망을 둡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니다(루카 4,18-19).

청할 은총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 자신을 내놓으신다는 이해가 깊어지도록 청하십시오

영신수련

파스카 만찬 준비와 최후의 만찬 사건 전체에 충분히 깊이 들어가는 것(은) ... 해당 장면을 그려 보는 것이나 해당 부분을 읽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말투에 유의하면서 경청하고 얼굴 표정을 살피고 가능한 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관상하는 신비에 최대한 온전히 들어가도록 한다. (영신수련 191, 192, 194, 195-197)

보충 자료

- 이사 61:3-9
- 탈출 12:1-8, 11-14
- 시편 116:12-13, 15-18
- 요한 13:1-15
- 마르 14:3-9
- 요한 6:1-15
- 요한 6:47-71
- 묵시 15:8

성경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반어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마태 26:19-20, 26-30)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잠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1코린 11:23-29)

질문

미시에 처음 참여했던 경험들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경험들은 성인이 된 지금 당신이 미시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일원이 된다는 것이 성체성사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신앙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당신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경건한 순간이 친밀함에 관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성체성사와 봉사의 관계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처럼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당신은 어떠한 방식으로 뺨이 되어 쪼개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줍니까?

특별 도움말

성찬례의 감사 기도들에서 당신이 어떻게 격려를 받는지 주목하십시오.

영적 위로: 우리의 내면생활이 다음과 같은 때이다. ... 이러한 위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깊이 인식하는 데에서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의 수난에서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에게 자신을 헌양이 내맡기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보는 데에서 올 수(도 있다)(영신수련 316)

제안

성체성사의 은총에 대해 어린 아이 또는 나이 드신 어른과 이야기 기해 보십시오.

성찰기도

한 주 동안 성찰기도를 하면서 당신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자각이 커졌다면 그것을 주일 전례 안에서 봉헌하십시오.

스물넷째 순간

청할 은총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성도
님이 차지하는 역할을 통해 배우
는 것이 있기를 청하십시오.

보충 자료

이사 42:1-7
시편 31:2-6, 12-17
루카 2:33-35
루카 2:41-45
요한 2:1-12
루카 7:11-17

고통 중에도 변함없는 사랑

영신수련

슬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변민에 쓰인 예수님과 함께 변민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참아 받으시는 온
갖 고통을 생각하고 눈물과 깊은 슬픔을 느끼는 선물을 계속 간청한다.(영신수련 203)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
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
다.(요한 19:25-2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참미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
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
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
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디어 나아갈 때에 그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는 희망은 듣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
을 알기 때문입니다.(2코린 1:3-7)

질문

당신의 경험을 고통이 떠올려 볼 때, 성모님과과의 관계를 키워 가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안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서 성모님의 역할을 표현한 예술 작품들 중 몇 개를 상기하고, 만약 가능한다면 직접 살펴보십시오

성찰기도

하느님의 초대에 더 충실해지기 위해서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점점 더 자각합니다. 그 은총을 청하는 당신과 함께하도록 성모님께 청하십시오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들과 예술 작품들은 당신과 성모님의 관계가 성숙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방해가 되었습니까?

성경 속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그분의 어떤 특징이 눈에 띄니까?

당신은 언제 성모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성모님의 역할을 보면서 연민에 대해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신앙적 응답 안에서 어떻게 통합시켜야 하는지 성모님은 아셨습니다. 그 모범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습니까?

식별 도움말

루카 복음의 예수님 탄생 예고 구절(루카 1:26-38)을 읽고, 하느님의 초대를 식별하는 성모님에 관해 꿈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로의 시기에 있는 동안에는 앞을 내다보고 위로의 시기에 주어지는 힘을 충분히 맛보아 위로가 주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야 한다.(영신수련 323)

스물다섯째 순간

함께 고통을 나누는 벗들

청할 은총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며
그분을 향한 슬픔과 연민을 느낄
수 있기를 청하십시오.

여신수련

내가 구하는 은총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고통을 견디어 내신 예수님과 함께 고통 속에 머물면서 슬픔과
수치심을 느끼는 선물을 내려 주시라는 것이다.(영신수련 193)

성경

보충 자료

미카 6:1-8

히브 4:14-16, 5:7-9

필리 2:4-11

필리 1:29

2티모 1:8-12

필리 3:7-15

그들은 찬미기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라 말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마태 26:30-46)

질문

당신 자신의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했던 기회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들의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조리한 고통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이 그 상황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당신과 다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응답합니까?

선한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느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식별 도움말

슬픔과 고통의 시기에 말없이 예수님과 함께 현존하는 것도 위로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실망 중에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홀로 남겨 두고 떠나셨다고 느낀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 은총의 힘과 권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언뜻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이 시기에는 하느님께서 관심과 배려를 계속 보이신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하느님 사랑의 후원이나 달콤함을 체험하지 못하며, 우리 응답에도 열정이나 강렬함이 부족하다. 우리는 마치 배만 양상하게 남아 해골 같은 삶을 이어 가는 것 같다.(영신수련 320)

제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병원, 요양원, 노숙자 쉼터에서만 아니라, 병정, 상담소, 식당, 교실, 회의실, 친교 모임, 연구실에서도 그리고 당신의 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찰기도

고통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일상적 응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십시오

청할 응종

세상에 만연한 인간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당신의 신앙이 깊어지도록 청하십시오

여신 수려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내적인 싸움, 노고와 기꺼이 당하신 온갖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수난의 시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성을 감추시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게 보이시는가 하는 점이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수난 안으로 들어가되 단지 외적인 고통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부와 따돌림을 당하는 내면적인 고통과 고독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온갖 고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사랑을 거부한 나의 죄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참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어떤 응답을 드려야 할까? 스스로 묻게 된다.(영신수련 197)

보충 자료

- 이사 49:1-7
- 이사 50:4-11
- 이사 52:13-53:12
- 마태 9:35-38
- 마태 51:1-12
- 루카 13:34-35
- 로마 8:22-27
- 로마 5:1-8

서경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루카 23:26-28)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화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관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파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1-39)

“그러면 그 의인들이 어떻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이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기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

다.”(마태 25,37-45)

질문

은 세상에 만연한 고통 앞에서 무력감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고통의 신비에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당신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고통이 경제, 법률, 의료 그리고 교육 제도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신의 투쟁을 어떻게 강화시켰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동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정의와 인권 분야의 중요한 쟁점들에서 당신이 지지 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 다양한 의사 전달 방식과 과학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신과 마음은 발과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세계를 기억합니까?

특별 도움말

세계 곳곳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면했을 때 당신이 경험하는 동요에 주목하십시오

영적 실망: 우리의 내면생활이 다음과 같은 때이다.

- (1) 스스로 어떤 영적 혼란 상태에 빠지거나 무거운 어둠과 압박으로 짓눌리고 있다고 느낀다.
- (2)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부족하여 기도나 어떤 영적 활동에 열증을 느끼고 하느님을 섬김에 있어서 침착하지 못하거나 미온적이다.
- (3) 영적 위로에서 설명한 것과 반대되는 효과를 느낀다. 실망 중에 반항심이나 지포자기,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위로의 시기에 하느님을 섬기고 찬미하려는 생각들과 완전히 대비된다.(영신수련 317)

제안

당신이 사는 지역, 국가에서 또는 세계에서 최근에 당신이 알게 된 고통을 상기하십시오.

성찰기도

그날의 선물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능력을 믿는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스물일곱째 순간

청할 은총

기다림과 무력감의 경험들을
받아들이 부활을 통해 새신된 신
앙이라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갖
추기를 청하십시오

보충 자료

시편 130:1-8
집회 11:20-21
이사 54:5-14
에제 36:22-28
로마 6:3-11
요한 14:23-29

희망을 안고 기다리기

영신수련

기도가 짐스럽고 메마르게 느껴질 때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응답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임을 생각하고 정해진
한 시간을 꼭 채워야 한다.(영신수련 13)

성경 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
았다 ... 이 사람이 벨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
이었다.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
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루카 23:50-56)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
을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
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
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
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로마 8:18-25)

주님께 바라라. 네 마음 굳세고 끈뭇해져라. 주님께 바라라.(시편 27:14)

질문

당신은 상실과 공허의 감정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당신은 불확실성, 혼란, 불안에 어떻게 마주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력함을 경험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대처하거나 반응합니까?

인간의 삶에서 기다림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역할에 관하여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낙담과 애痛的 시기에 당신을 안심시키는 희망의 징표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희망과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없이, 단지 그와 함께 있으며 이야기를 들어 줌으로써 당신의 희망을 나눈 적이 있 다면 자세히 떠올려 봅시다.

특별 도움말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충실한 약속에 희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느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삶의 한복판에까지 들어오신다. 용기장이가 진흙 일을 하고 어머니가 해산을 하 듯이, 그리고 죽은 뼈들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하느님은 신적인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신다. 하느님의 일손 은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상 죽음에서 최고조에 이르러 생명의 부활을 맺었다.(영신수련 236)

제안

지금 이 어느 계절이든 상관없 이 정원이나 초목 사이를 거닐면 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죽 음-새로운 삶의 주기를 관찰하십 시오.

성찰기도

다음 날 필요한 도움을 하느님 께 청할 때, 당신을 변화시키는 하 느님의 능력에 대한 희망과 신뢰 도 표현하십시오.

되풀이 기도 IV

되풀이 기도를 할 때 전인적 참여가 필요하며 경험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되풀이 기도는 우리 기도 경험의 실재와 의미에 관해 깊이 있게 숙고하는 지혜에 근거를 둡니다. 되풀이 기도는 이 책의 주어진 부분 안에서 얻은 선물과 인식을 하느님이 심화하시도록 허용하고 다시 재음미하는 방식으로 되풀이에서 발견되는 지혜를 사용하도록 초대합니다.

다음은 스물셋째 순간부터 스물일곱째 순간까지 되풀이하는 당신을 안내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지난 며칠 또는 몇 주간 당신이 청한 은총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떤 청원이 계속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흥미를 끌었습니까? 비라는 그 은총을 기도 안에서 주님께 보이십시오.

이 기간을 되돌아볼 때, 영신수련의 통찰 가운데 의외로 현실적 지혜가 담겨 놀라웠던 내용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 통찰을 숙고하고 그 지혜를 어떻게 삶의 리듬과 합칠지 성찰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과 당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때 의식 속에 계속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

고 말씀하십니까?

속고를 돕기 위해 실제적 제안들도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제안들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제안들이 당신이 기도과 일상을 통합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질문들은 삶의 현실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질문들로 어떤 도움을 받았고 또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지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식별 도움말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위로를 받은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위로를 음미하고 당신 안에서 그 경험의 심화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더 자각하는 데 성찰기도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 자각에 대해 성찰하고 당신의 의식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심화하도록 맡기십시오.

사진에서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스물셋째부터 스물일곱째 순간까지 기도하는 동안 올라온 원의, 자각, 통찰들을 이 사진이 어떻게 뒷받침합니까?